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항만연구단 물류항만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09.12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케냐 Second Corridor 프로젝트에 국제적 관심 고조	2
□ 나미비아-잠비아-DR콩고간 Corridor 개발도 당사국간 협의 중	4
□ 중국 CHEC사, 수단에 컨테이너 부두 건설키로	5
□ 프랑스 Marseille-Fos항 「컨」터미널 운영사 선정 입찰계획	6

□ 케냐 Second Corridor 프로젝트에 국제적 관심 고조

- 다른 대륙에 비해 유난히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ies)가 많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심해항만을 소유한 국가와 내륙국가들 간의 국가간 공조 물류망(Transport Corridor)이 발달
 - 심해항만에서 철도, 도로 등을 연결해 내륙국가로 수송하는 복합운송 공조 물류망
 - 아프리카 대륙에는 현재 케냐 Mombasa항을 기·종점으로 이용하는 Northern Corridor 등 8개 Corridor가 구축 운영 중



○ Northern Corridor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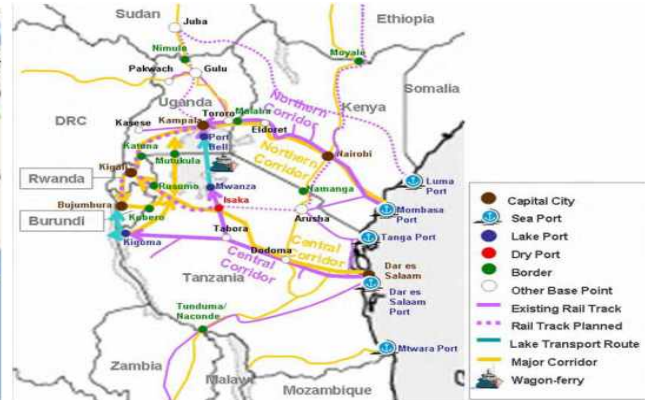
- 1987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르완다 및 우간다 간에 체결된 Northern Corridor Transit Agreement에 의거 발족된 공조 물류망(도로망 기준 6,706km)
- 케냐의 Mombasa항을 모항으로 이용(2008년, 615,733 TEU 처리)
- 2008년에 Northern Corridor를 이용한 전체 물동량은 약 1천만 톤



○ Second Transport Corridor 프로젝트 내용(요약)

< 프로젝트 개요 >

- 케냐의 수도 Nairobi에서 동남쪽으로 510km 떨어진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Lamu섬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여 모항으로 이용하고 수단 남부,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차드를 거쳐 대서양 연안의 카메룬까지 연결하는 제2의 국가간 물류망을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 총 사업비는 약 160억불(약 19조원)로 추산되고 있으며 항만, 도로, 철도, 석유 송유관 (Pipeline) 및 공항까지 망라하는 물류시설을 건설(철도망 기준 4,000km)
- 2015년 준공 목표이며 Lamu항 건설에만 35억불이 소요될 예정
- 22선석/3,500m, 연간 3,500만톤 처리능력의 항만시설(자연수심 15m)을 건설



< 케냐 정부, 관심국가 동향 및 향후일정 >

- 케냐 정부는 전체 프로젝트를 1) 항만건설 2) 철도망 건설 3) 석유 송유관 건설 등 3개로 세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사업 추진 예정
- 현재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프로젝트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BOT Basis)
- 2010년말까지는 2선석의 공사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전체 프로젝트 건설기간은 5년 소요
- 2008년에는 카타르가 가장 적극적으로 Lamu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을 표명하고 투자조건으로 케냐가 4만 ha의 농장부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는 교착상태
- 2009.10 케냐의 Odinga 총리 일행은 중국을 방문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중국 측의 투자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중국은 수단산 원유의 자국 수송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자세인 것으로 관측

자료 : Business Daily Africa 2009.11.11, Railways Africa 2009.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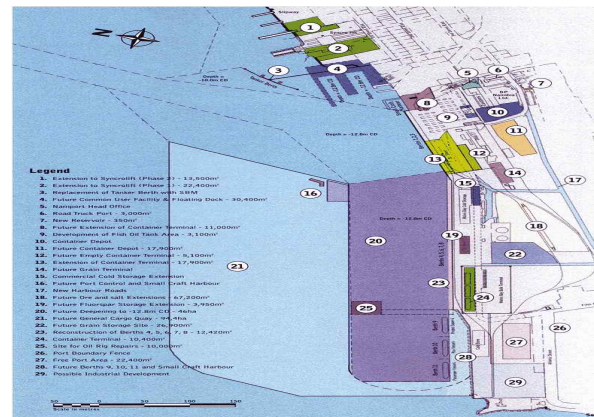
□ 나미비아-잠비아-DR콩고간 Corridor 개발도 당사국간 협의 중

- 나미비아, 잠비아 및 콩고민주공화국(DRC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등 3개국은 나미비아의 Walvis Bay항을 모항으로 하여 잠비아의 Ndola-DRC의 Lubumbashi를 잇는 WBNL(Walvis Bay-Ndola-Lubumbashi) Corridor의 개발방안을 최근 협의



○ 나미비아 Walvis Bay항 개요

- 아프리카 남서안에 위치한 항만으로서 2008년에 439만톤의 화물을 처리(컨테이너 170,586 TEU)
- Namport(Namibian Ports Authority)가 항만관리청이며 11개 선석 운영(수심 12m)
- 2010년 중에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할 예정



○ WBNL Corridor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WBNL Corridor 구축은 관련 3개국의 외국자본 유치, 물류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지역의 수출입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0.2 잠비아에서 개최되는 3개국 관계장관회의에서 협정 체결 및 추진일정 제시 예정

자료 : Namport, Walvis Bay Corridor Group, New Era Namibia 2009.11.16

□ 중국 CHEC사, 수단에 컨테이너 부두 건설키로

- 중국 CHEC사(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는 수단 Digna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키로 수단 Sea Ports Corporation과 최근 합의
 - 중국은 최근 수단의 각종 인프라개발 사업개발에 자국 인력과 장비를 지원 중
- CHEC사(中国港湾工程有限责任公司) 개요
 - 중국 국영 CCCC사(中国交通建设股份有限公司,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Limited)의 해외부문 자회사로 1) Marine Engineering, 2) Dredging and Redamation, 3) Road and Bridge, 4) Port Machinery, 5) Survey and Design의 사업 수행
 - 현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에서 항만건설 공사 중(2007년 해외수주액 20억불)
※ CCCC사는 미국 ENR(Engineering News Recording) 수주 기준 세계 14위
- 수단 Digna항 개요 및 컨테이너터미널 건설계획
 - 수단 최대의 항만인 Port Sudan에서 남쪽으로 불과 60km 떨어진 홍해 연안의 항만으로 정식 명칭은 Port of Prince Osman Digna, 수단 Sea Ports Corporation이 항만관리청
 - 4개 선석(수심 9m)에서 연간 150만톤 정도의 화물 처리와 여객터미널 운영
 - 10만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컨테이너 2개 선석을 건설, 총 사업비 1억불, 건설기간 3년
※ Port Sudan은 컨테이너 2개 선석(427m, 수심 12.6m)에서 2008년 342,152 TEU 처리



자료 : Sea Ports Corporation Sudan, CHEC, Sand and Gravel 2009.11.11

□ 프랑스 Marseille-Fos항 「컨」터미널 운영사 선정 입찰계획

○ Marseille-Fos항 개요

- Marseilles-Fos항은 Marseilles항(구항)과 Marseilles항 북서쪽 38km에 위치한 Fos-sur-Mer항 (약칭 Fos항, 신항)의 양대 항만으로 구성
- 프랑스 제2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서 2008년에 전년보다 15% 감소한 847,651TEU 처리 (2007년 1,002,879 TEU), 현시설의 처리능력은 연간 100만 TEU



○ 금번 입찰대상 컨테이너터미널, 그간의 경위 및 향후일정

- Fos Container Terminal(일명 Graveleau 터미널)이 입찰대상으로 5선석(Berth 862 ~866), 1,180m, 수심 14.5m의 시설 규모
- 2009.7 항만관리청인 Grand Port Maritime de Marseille가 프랑스 항만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단일 운영사 설립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의 운영사인 Seayard사와 Eurofos사가 합작회사 설립을 그간 협의하여 왔으나 지분을 배분 문제로 협상이 최종 결렬
- 항만당국은 2010년 4월까지 국제입찰을 거쳐 운영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



자료 : Grand Port Maritime de Marseille, CI-Online 2009.11.30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